

# 밤 아영집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THE 7TH CHANGWON  
SCULPTURE BIENNALE

큰 사과가 소리없이  
silent apple







이 소리없이  
apple

THE EXHIBITION  
WITH CHA  
S. J. B. E. E.

일곱 시가 되었네요. 밤 야영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돛자리와 의자, 손전등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아  
눕거나 앉아서 시간을 보내 주세요.

동남운동장에는 8개의 조각, 6개의 소리나는 위치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는 하루 세번, 일출, 일몰, 달이  
가장 높이 뜨는 때 납니다. 오늘 달은 7시 56분에  
가장 높이 뜹니다.

모든 위치를 찾아보셔도 좋고, 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현수막 책상 위에 작품 지도와 설명글이 있으니  
작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종이의 도움을 받으세요.  
혹시 추우면 따뜻한 물과 석창포 차 티백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용해 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좋은 시간 보내시고, 감상을 마친  
분들은 운동장 중앙으로 모여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  
최대한 한 시간은 넘지 않기로 해요. 모두가 운동장  
중앙에 모이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사과가 소리없이  
silent apple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THE 7TH CHANGWON  
SCULPTURE BIENNALE





“1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어떻게 이곳까지 오시게  
되었는지, 한 시간 동안 무엇을 보거나 했는지 생각을  
떠올려 주세요.”









“손전등 가진 분들 따라서 다니다가 자리 잡고 작품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일상적인 얘기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순천

“지금까지 창원 조각 비엔날레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작품 감상을 하러 와도 이렇게  
오래 머물지는 않고.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그것도  
밤에 와서 작품 옆에서 한 시간 동안 본다? 작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왔더라도 계속 이 작품을  
생각하게 만드는,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얼굴이 없을까  
왜 얼굴을 이렇게 가슴팍에 새겼을까, 그런 혼자만의  
다양한 상상을 하고 또 같이 얘기도 하면서 두루두루  
오랫동안 감상했습니다.” —이서훈

“작품이 여덟 개 있다고 알려주셔서 다 세면서  
확인하고, 그 앞에 자리를 잡고 별로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역시 작업이 있으니까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어요. 작품과 대화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밤에  
보니까 약간 유령 같은 느낌도 있고 영혼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게 재밌었습니다.” —리에

(프로그램 마치고) “선생님 사실은요 저는요  
유치원에서는 말 잘해요. 그리고요 풀이 너무 커서  
무서웠어요” —수이

“옆집 삼촌인데요. 뭔지 모르고 일단 따라왔는데, 잘  
은 것 같아요. 창원조각비엔날레 시작하기 전부터  
여기서 어떤 전시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는데,  
처음 보는 게 밤이 되었는데. 오자마자 첫인상은  
저 작품 (정현, <목전주>)의 목전주가 원래 창원에 있던  
거였거든요. 제가 어릴 적 살던 우리 집 대문 앞에도  
바로 목전주가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났어요. 그  
동네는 공단이 생기면서 사라졌어요. 지금은 GM  
자동차 공장이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저 두 하얀 조각상 (이유성, <주전자 여인> (수직  
사바야사나)) 들은 아마 여성 노동자를 형성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한일합섬이나 마산 쪽 여공은 교대로  
일하면서 밤에도 일을 했던 말이에요. 그분들이 한참  
일할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시간 동안 저는 누워서 하늘을 봤습니다.  
반짝반짝하는 별을 계속 보면서 이 동남아트센터는  
자주 왔지만 이 운동장을 거의 의식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어릴 적 기억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에 장갑차가 있었어요. 군인들이  
장갑차에 저를 태우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줬던  
기억이 나요. 제 어릴 적 기억을 상기시키는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서훈

# 수이에게

“재밌었고, 작품도 보고, 그리고 작품 보면서  
얘기도 하고 밤을 산책했고, 저게 [침낭] 하니까  
미끄러웠는데 캄랑 같았어.” —수이





큰 사과가 소리없이  
silent apple

제7회 청원조각비엔날레  
THE 7TH CHANGWON  
SCULPTURE BIENNALE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편안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는 저쪽 천막 아래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었는데, 그동안 바빠서 동료분들이랑 이야기도 못 나눴는데 간만에 스몰토크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민경

“저는 관람자 분들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찍다 보니까 그 사진 속에서 예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풍경을 보는 재미가 있었고 밥이 되니까 차도의 불빛이 예쁘더라고요. 천막에서 차도 마시고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소풍 가거나 옥상에 올라갔던 시간이 생각이 나서 좋았어요.” —정윤선

## 큐레이터팀

“오늘은 일을 하러 왔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도란도란 앉아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해야 되나, 지나가면서 관객 분들에게 잘 보셨나요? 라고 물어보기 애매한데,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나눠 보고 싶었거든요.” —박현

“오늘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게 될 줄 몰랐는데 여기 양옆에 있는 이 친구들이랑 한 시간 동안 그림 그리기를 하면서 조전한 작가님 지붕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고요. 그냥 생각 없이 그 친구들이 패드 안에 어떤 걸 그리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이미지





“와! 나는 이거 밤 열두 시까지 할 수 있어요!”  
—젤리곰

“미술대회 참석하러 (창원에) 왔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술 대회 끝나고 나서 얼마랑 거기 구경하고, 박물관 구경하고, 빵 먹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 카페에 왔어요” —젤리곰

“동생이 배고프다고 해서 빵 먹으러 카페 와서 먹고 책 보고 있었는데 재밌는 거 한대서 왔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밤이라서”  
—김오이

## 오이네

“저희는 양산에서 왔고 맘푸라는 다문화 행사 안에 사생 대회가 있어서 (창원에) 왔다가 끝나고 성산아트홀에 주차를 했어요. 마침 공연을 있다고 해서 보고 갈까 하고 갔다가, 전시회를 봤는데 비엔날레 전시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할인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셔서 집에 가는 길에 아이들이 케이크 먹고 싶다고 해서 들렀는데, 마침 운동장이 보여서 왔어요. 낮에 봤을 때는 행해가지고 (카페로)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저녁 프로그램이 있다고 안내해 주셔서 와, 재밌겠다고 하고, 약간 탐험하듯이 플래시 들고 돌아다니겠다고 하니깐 두 친구가 신나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이렇게 우연에 우연을 거쳐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배수연

“저는 그냥 제 공부했어요.” —젤리곰

“저기 사람 조각에 얼굴이 없어서 무섭고 (이유성, (주전자 여인)) 저기에서 무서운 음악도 나오고 말소리로 무섭고 (탠저린콜렉티브, <울림노래-목소리가 집 밖으로 새어나와>) 저 사람들도 무섭고 깜깜하고 근데 이게(손전등) 있어 갖고 다행이었어요.” —김오이

“전체적으로 작품을 한 바퀴 둘러보고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서 가 있었는데, 저희가 캠핑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런 느낌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다른 곳은 뭔가 험한 게 있는데, 여기(조전환, (3,4,5))는 뿔려 있지만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어서 그 안에 있었어요. 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은 돌이서 그림도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이야기 나눠주시는 동안 저는 아까 저 나무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리면 또 가서 다시 확인해 보고 (탠저린콜렉티브, <울림노래-목소리가 집 밖으로 새어나와>) 앉아 있으면서 저 목전주(정현, <목전주>) 사이로 보이는 달이 또 그냥 보는 모습이랑 달라서 계속 보고 별들도 보고, 그새 눈이 어둠 속에서 익숙해지니까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 감정이 들었는데, 처음 도착했을 때는 황량한 곳에 덜렁덜렁 조형물이 있으니깐 뭔가 폐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에, 마침 서 있는 모습들도 조금 그래서 선뜻 안 내려와져서 저희가 바로 (카페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밤이 되니까 이 작품들이 더 잘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일부러 조명을 빼고 이렇게 보게끔 의도를 하신 건가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저기(조전환, (3,4,5)) 앉아 있는 동안 여기는 되게 고요하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옆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막 겹쳐지는 게 생뚱맞는데, 내가 혼자 너무 멀리 안 떨어져 있고 도시 안에 있는데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건데, 옛날에 민방위를 하면 야간에 불을 다 끄게 했어요. 불 켜진 집에 막 소리 질렀거든요. “불 끄세요, 불 끄세요” 이러면 온 동네가 진짜 깜깜해졌는데, 그게 너무 재밌고 신나고 새로운 경험이고, 또 무섭지 않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 기분이 갑자기 막 들더라고요.

밤에 어디를 갔을 때 무서운 곳이 있고, 기분 좋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감정이 들면서 여러 가지 오묘함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작품(조전환, (3,4,5))도 다시 보이는 게, 이렇게 보면 오각형이 되고 이렇게 보면 육각형이 되네 이런 것도 보이고 마지막에 한 포인트만 한 삼각형만 검정어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해봤을까 공간을 이동하는 의미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성산아트홀에서 봤던 작품 중에서도 그렇고 아까 저기 녹음되어 있는 소리 (탠저린콜렉티브, <울림노래-목소리가 집 밖으로 새어나와>)에서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고,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말이 너무 기네요. 아무튼 많은 걸 느끼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배수연





클 시메가 소르망  
silent apple

이탈리아 국립현대미술관  
FONDATION GUGGENHEIM  
MUSEUM OF MODERN ARTS  
NEW YORK

“아빠 엄마랑 다같이 작품도 보고 그랬어요.”  
—전현서

“저는 비엔날레에 도슨트로 참여 중인데, 도슨트 일을 하다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품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아침에 볼 때 다르고 저녁에 볼 때 다르고 그게 우리 예술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공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연히 편지 (우아를, (밤야영지))를 읽게 됐습니다. 거기에 한 문장, “단지 그뿐입니다”라는 한 줄이 그저 그냥 오라는 말로 들렸어요. 이유 없이.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았고 제 발길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냥 한 시민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예술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추억을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서 오늘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미

## 도슨트 가족

“옆에 계신 김상미 도슨트 선생님의 남편이고요. 문자로 그냥 와라. 그래서 이런 정보 전혀 모르고 그냥 온 것뿐이고요.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붕어빵은 제가 먹으려고 산 건데, 알았더라면 많이 사 왔을 텐데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혹시나 올 기회가 생기면 많이 사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민

“목전주 중간에 달빛이 딱 들어오게끔 하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좋더라고요. 보면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늘도 보고 편안하고 고요한 평정심을 찾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이 작품 하나하나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작품이 뭔지, 뭘 말하는 건지를 모른다는 게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한 시간이 두시간 세시간 같이 길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전성민





# 대학생과

“전공 때문에 전시 자주 보러 다니는데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면 쾌적하고 경이로운 느낌이 좋거든요. 이번에도 비엔날레 한다면 구경하다가 편지를 봤는데 밤에 야영을 한다는 것도 낭만 있고,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전등 들고 밤에 보니까 저번에 봤던 거랑 달라서, 또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보다가 여기 옆에 선생님이 노래 틀어 놓고 앉아서 보고 계신데 뭔가 낭만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되게 낭만 있어 보인다 하니까 갑자기 의자를 저한테 양보해 주셔가지고 앉아서 인생철학이나 사람이 인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듣고 공감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최시은

“저는 가끔 이 커피숍에 책도 읽을 겸, 커피도 한잔할 겸, 저희들 로컬 마트에 필요한 거 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데요. 오늘 책 읽고 있는데 우연히 두 분이 오셔서 뭐 이런 행사가 있다 해서 예전 같으면 그게 뭐냐, 하면서 조금 싫은 투로 응답을 했을 건데, 어 그래요, 그게 뭐 비엔날레가 뭔지 모르지만, 광주 비엔날레 생각이 나서 어 그래 몇시고 제가 가보겠다고, 그래서 실제 와 보니까 진짜 우연치 않게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불러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진짜 드립니다. 이 한순간 지금이 내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제일 연장자 같은데 이런 경험을 흔쾌히 허락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원에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또 자기가 가보지 못한 어떤 색다른 모임에도 갈 수 있는 시니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데 볼 틈도 없이 저쪽 구령대에 있는 저 조각상(이유성,〈천사〉)이 혼자서 너무 노력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조각들은 혼자서 조금 뽐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뭐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긴 파이프에 입이 있는데 뭐 내를 위해서든 누구를 위해서든 부는지 안 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 앞에 제 의자를 두고 앉았어요. 그죠? 그래 관악기 같은 느낌이 들길래, 제가 유튜브에 피리 소리를 찾아서 들었어요. 오 그러니까 또 한층 더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도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다른 데를 다 둘러보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올 때 또 한번 둘러볼게요.” —이만호

# 시니어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THE 7TH CHANGWON  
SCULPTURE BIENNALE

큰 사과가 소리없이  
silent apple

